

「애러비」의 탈식민성: 아일랜드의 독립에 대한 조이스의 은유

심 상 욱

I. 머리말

최근 탈식민주의 이론에 따라 조이스의 ‘아일랜드성’ 및 탈식민성을 강조하는 에드너 더피(Edna Duffy)의 『반식민지 조이스』(*Semicolonial Joyce*)와 같은 연구 서들이 나오면서 조이스를 ‘진솔한 아일랜드’ 작가로 복원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문학작품을 탈식민주의적 관점에서 살필 때 제레미 호돈(Jeremy Hawthorn)이 말한 것처럼 “식민지 지배를 받는 국가와 지배자 사이에 숨겨져 있거나 기술되지 않고 함축되어 있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140). 필자는 조이스의 『더블린 사람들』(*Dubliners*)에 편집되어 있는 단편 「애러비」(“Araby”)의 주인공 ‘소년’이 이국적인 이름을 가진 바자회에 가보기도 하나 그의 모험탐구가 실패로 끝나버린 불품없는 허영심을 낭만적으로 그린 사랑이야기라는 지금까지 비평과는 달리 조이스가 조국 아일랜드의 독립에 대한 간절한 바람을 사랑의 은유로 표현한 것으로 보고자 한다.

우리가 「애러비」를 ‘낭만적인 사랑’으로 본 것은 작품에서 소년은 마음속으로 망간(Mangan)!) 누나를 계속 따라 다니고 있으며, 늦은 시간(밤 10시 10분전)인데

도 바자회에 간 것은 결국은 그녀 때문에 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음을 주목하여보면 이 작품이 낭만적인 사랑이 아님을 보다 분명히 알 수 있다.

내가 여기에[애러비 바자회] 온 이유를 어렵게 생각하면서, 나는 한 진열장 쪽으로 가 자기로 된 꽃병과 꽃무늬가 있는 찻잔 셋트(flowered tea-sets)를 살펴 보았다. 진열장 문 옆에서 젊은 부인이 두 젊은 신사들과 말하면서 웃고 있었다. 나는 그들의 영어 액센트에 주목하여 그들의 대화를 ‘vaguely’(모호하게) 들었다. (D 23 필자 강조)

이 구문에서 “vaguely”의 의미가 1)막연히, 2)모호하게, 3)애매하게, 4)흐릿하게 등으로 풀이되지만 이 문장의 앞부분에서 주인공 소년이 ‘영어 액센트’에 주목했다고 했으니 소년이 전체 대화를 적극적으로 들으려고 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조이스가 쓴 대로 그들은 ‘영어’로 말하고 있어서 소년은 대화의 내용을 ‘모호하게’ 들었다고 했음에서 식민지 아일랜드에서 영어가 강제로 사용되어 오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바로 식민지 지배하에 있는 아일랜드의 상황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다. 작가에게 가장 중요한 자료는 언어로 순수한 아일랜드의 태생인 조이스는 편히 영어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 조이스에게 있어서 영어는 ‘너무나 친숙하면서도 너무나 생소한 외국어로서 모국어’였던 것이다.

그래서 조이스가 작품 활동을 했던 당시 영국의 식민지 지배 밑에 있었던 아일랜드를 재구성해본다는 차원에서 힐리스 밀러(Hillis Miller)가 말한 지금까지 “읽어 온 모든 것[작품]은 잘못 읽어온 것”(All reading is necessarily misreading) (Abrams 230) 것으로 가정하고 ‘다시 읽기’를 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읽기는 조이스가 “그의 작품에 바친 노력과 비슷한 양의 노력을 독자도 작품에 지불해야 한다”(Yu 15)고 한 것에 보다 가깝게 다가가는 것이 될 것이다. 따라서 조이스의 작품이 식민지시대의 아일랜드가 배경이 되어있기 때문에 1)식민지 시대의 더블린의 실상과 2)‘애러비’가 단순한 사랑이야기가 아닌 조이스의 아일랜드의 독립에 대한 간절한 바람을 사랑의 은유로 어떻게 표현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망간의 누이 이름은 명시되지 않았지만 망간의 이름은 조이스가 좋아하였던 아일랜드의 낭만파 시인 제임스 망간(James Clarence Mangan, 1803-1849)을 연상시킨다(진은경 외 109).

II. 식민지 시대의 아일랜드

영국의 식민지인 아일랜드는 1922년에 영국으로부터 독립했기 때문에 식민지 시대의 아일랜드를 살펴보면 다음 몇 가지가 두드러진다. 먼저 수도 더블린은 트리니티 대학 출신의 영국계-아일랜드 세력이 아일랜드의 지식, 문화, 교양 등을 수 세기 동안이나 지배해 왔음을 볼 수 있다. 조이스는 이들과는 달리 본래 아일랜드의 태생으로 『더블린 사람들』의 작품들에 표현된 대로 ‘마비’되어 있는 더블린에서 더 나아갈 길이 없어 『젊은 예술가의 초상』(*A Portrait of the Artist as a Young Man*)의 주인공 스티븐 데달러스(Stephen Dedalus)가 식민화된 아일랜드를 떠나 대륙으로 비상했던 것처럼 조이스는 더블린을 떠났을 것이다.

영국의 식민지 지배를 받은 아일랜드의 큰 변화는 「애러비」에서 보듯이 아일랜드의 언어가 영어로 공식화되어 자리 잡았고, 특히 1801년 아일랜드가 영국과 완전히 ‘합병’이 된 후로는 아일랜드어와 아일랜드 문화가 급속히 쇠퇴했으며 영어 및 영국문화가 일상적 삶의 수단으로 정착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영국의 ‘신민’이었을 뿐만 아니라 영어로 생활하는 아일랜드인들은 당시 영어권의 중심인 런던이나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 그러나 조이스는 영국이나 미국이 아닌 가톨릭 문화의 중심지역인 이탈리아로, 프랑스로, 다음은 스위스에 정착했다. 특히 조이스는 ‘영어’에 대한 거부반응이 강했는데, 『초상』에서 자신의 분신인 데달러스의 거부반응에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언어는 내 것이기 전에 저 사람 거야. home, Christ, ale, master, 이런 말이 저 사람의 입술에서 나올 때와 내 입술에서 나올 때 얼마나 다른지! 나는 이런 말들을 말하거나 쓸 때 정신이 불안해지지 않을 수 없어. 너무나 친숙하면서도 너무나 생소한 저 사람의 언어는 내게는 영원히 배워서 익힌 말일 뿐. 이 언어의 말들을 내가 만들거나 받아들이지 않았으니까. 내 목소리는 항상 거리를 두기 마련이고, 내 영혼은 저 언어의 그늘 밑에서 늘 초조해 하는 거야.” (PA 159 필자 강조)

이 표현에 나타난 것처럼 식민지인 아일랜드의 입장에서 영어가 자신의 언어이면서도 그렇지 않은 모순을 보이며, 또한 아일랜드 사람들은 법적으로 대영제국의 시민이면서도 그렇지 않은 모순, 영어로 좋은 문학을 창작해 내면 낼수록 오히려

영국인이 “식민지의 상전을 모시는 썸이 되는 모순”(Kiberd 332), 이러한 복합적인 모순을 조이스는 그대로 직시하여 작품에 표현해냈다.

이렇게 창작된 조이스의 작품은 출판업자에 의해 수정을 거쳐 출판되었기 때문에 그는 『더블린 사람들』이 출판된 후 업자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낸 바 있다. “나는 나의 책이 ‘최대의 실패’(un fiasco solenne: an utter flop)로 나타났다는 것을 후회한다”(L II 368). 그리고 조이스는 자신이 말하는 '진리'라는 것은 실제의 장소에 살고 있는 실재 인물들의 실질적인 이름이며, 그 인물들은 더블린 시민들을 닮아 그들의 실제적인 '언어'로 말하는 것을 요구했고, 표현에 있어서 낭만주의적인 표현이 아닌 사실적인 표현으로 나타나는 것을 요구했다(D viii). 무엇보다도 조이스는 영어와 영국의 규범을 허물어뜨리며 이전 시대의 슬한 가톨릭계 망명 정치인들의 경우와 유사하게 가톨릭이 중심인 유럽, 특히 영국의 전통적인 속적이었던 프랑스와의 문학적 연대를 도모하여 플로베르의 사실주의 기법을 도입하여 창작했다.

이와 같은 조이스의 작품의 배경은 아일랜드의 수도 더블린으로 작품에서 더블린의 실제거리와 장소들을 정확하게 제시하였고 작중인물도 거의 다 아일랜드의 실존인물들을 모델로 삼았다. 뿐만 아니라 작품 속의 사건이나 상황도 실제 체험이나 아일랜드의 역사적 사실들에 바탕을 두고 있어 ‘그의 작품은 문학이면서 아일랜드의 역사서이고, 더블린의 지도’인 썸이다(Yu 14). 그러나 조이스가 작품에 그린 더블린은 자유스러운 더블린이 아니다. 오래전부터 영국의 식민지로 변한 더블린이다. 파넬(Charles Stewart Parnell)이 1891년에 정치에서 실각하자 조이스의 아버지, 존 조이스(John Joyce)는 노스 리치몬드로 이사했고, 자신의 퇴락을 파넬이 배신당한 것과 연결시켰다. 조이스는 그러한 아버지를 따라 이사 다니면서 자연히 더블린 사람들의 상층부터 하층까지 두루 섭렵하였다.

영국의 식민지 정책에 의해 이미 영국화된 역사 속에 태어나 영국계 지배층의 거점인 더블린에서 성장한 조이스는 창조성을 억압하는 가톨릭 중산층 문화를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과격파 민족주의 무장 저항운동인 피니언(Fenian)주의자가 되어야만 했기에, 그리고 아일랜드가 거의 8세기 동안이나 영국의 식민지로 있었기에 그는 토착 언어와 문화 그리고 그러한 정신을 잃은 지 오래인 까닭에 인위적으로 일으키는 토착어 부활운동(Gaelic League)에 동참하는 것도 자기 몫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아일랜드를 떠났다. 이때 지녔던 ‘불안한 정서’를 조이스는 그대로

창작의 에너지로 전환시켰다(윤혜준 100-101).

대체로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는 쪽의 작가들은 표현을 ‘사실적으로 직접 표현한 것보다는 은유의 형태’로 표현한다. 사실 조이스가 신화기법을 도입한 『율리시스』(*Ulysses*)를 발표하고 나서 공개적으로 문학을 전공한 학자들이 자신의 작품을 해독해 내는데 고생을 할 것이라고 했던 것처럼(김종건 9), 우리는 그가 표현한 은유를 바르게 해석해 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조이스가 식민지 아일랜드를 떠나 대륙으로 간 이유를 살펴야 할 것이다.

필자는 조이스가 더블린을 떠난 이유를 다음과 같이 보고자 한다. 1)조이스의 애인 노라 바나클(Nora Barnacle)과의 관계에서 그녀의 신분이 조이스 가문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신분으로 조이스의 추상적인 문학세계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녀는 자신을 남자로 만든 사람으로 생각하면서 그녀에게 평생 충실했다. 조이스는 노라와의 관계가 더블린에서는 도저히 인정을 받지 못할 것 같았고 더블린의 문학계에서는 자신의 문학적 자질을 펼치지 못할 것을 깨닫게 되자 노라와 함께 유럽으로 망명했다. 2)식민지인 아일랜드에는 정치적 증오심이 난무하고 여러 갈래로 분열되어 있어 자신의 예술가적 균형감이 상실될지 모른다는 위기감 때문에 망명을 했다고 할 수 있다. 3)조이스가 아일랜드의 문예부흥에 대한 실망 때문에 유럽망명을 했다고 본다. 즉 예이츠(W. B. Yeats) 등이 주동이 되어 아일랜드의 정체성을 옛 민담과 전설 등 아일랜드의 토속문화에서 찾고 있었지만 그의 생각은 이와 반대였다. 조이스는 그들의 문학은 현실성이 결여되었고 과거 지향적으로 생각되었으며 신비주의 경향이 강해, 그는 보다 사실적인 문학세계, 전원이 아닌 도시 작가, 아일랜드 정신이 식민지시대에 존속해왔던 것이 아닌 미래 지향에 초점을 맞춰 대륙으로 망명하였다.

조이스는 당시 아일랜드에서 유명했던 예이츠처럼 영국에서 건너온 정복자들의 후예인 영국계-아일랜드인(Anglo-Irish)이 아니라, 이들과 정치, 종교, 문화적으로 정반대 편인 아일랜드 토착인인 가톨릭계 집안에 태어났다. 식민지 아일랜드계의 가톨릭 세력은 오래된 ‘국제적 연대’의 축에 따라 가톨릭이 강한 유럽과의 연계를 맺고 있었다. 출신배경부터 영국과 불편한 관계일 수밖에 없던 조이스는 영국 문단에 기대어 자신의 출세를 도모하지 않았고, 영국을 건너편 채, 역사적으로 가톨릭계 아일랜드인들이 영국 지배자들에 대한 거부의 표시로 구교도 문화의 중심지역인 이탈리아와 프랑스로 ‘망명’했다. 그러나 조이스는 아일랜드의 독립을

기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문학에서 아일랜드를 꾸준히 다루어서 더블린은 조이스의 삶뿐만 아니라 문학의 고향으로 그의 문학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다.

『더블린 사람들』은 영국제국주의자의 입장에서 보면 더블린 사람들의 실상을 그대로 사실적으로 그려냈기 때문에 당시 영국의 식민지 지배 밑에 있는 아일랜드 사람들의 정서로는 용납될 수 없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1)더블린 시민들의 모습이 작품에서 형편없이 제시되었고, 2)주제들도 부적절하거니와, 3)그가 사용한 언어도 문제였다. 이 책을 출판키로 한 더블린의 한 출판사는 소송이 들어올까 봐 겁을 내고 있었고, 여러 부분에 걸쳐 삭제를 요구했다. 결국 더블린에서는 출판되지 못하고 1914년 그란트 리차즈가 영국에서 출판하였다.

조이스가 『더블린 사람들』에서 더블린을 세밀하게 묘사한 이유를 1906년 6월 23일 리차즈에게 보낸 편지에서 알 수 있다.

석탄 잿구멍과 시든 잡초 그리고 고기 찌꺼기들의 냄새가 제 이야기 주변에 맴도는 것은 제 잘 못이 아닙니다. 말끔히 닦아놓은 제 거울에서 아일랜드 민족이 자신들의 모습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도록 막는다면 아일랜드 문명의 흐름이 지연될 것이라고 저는 진지하게 믿습니다. (Yu 39 재인용)

조이스는 이 편지에서 아일랜드 국민이 보이는 ‘시든 잡초나 고기 찌꺼기’ 같은 실상은 아일랜드를 지배하고 있는 영국의 책임임을 분명하게 적고 있다.

이러한 아일랜드의 상황은 일본이 한국을 식민화할 때 영국과 독일의 식민정책을 그대로 모방하여 적용한 당시 일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일본의 식민학의 개척자로 유명한 야나이하라 타다오가 쓴 「조선은 우리나라[일본]의 아일랜드」(349)에서 잘 살필 수 있다. 그는 아일랜드인의 자주독립운동은 일본의 지배에서 벗어나려는 한국인의 운동에 자극을 줌으로 근본적으로 조선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포탄을 품고 불가에 있는 것과 같다는 것으로 보고 있었다. 그러므로 영국이 아일랜드에 베푸는 정책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그는 진단했으며 그것으로 인해 일본은 한국에 대한 문화정책을 강화했다(홍영기 379).

사실 아일랜드는 1171년에 영국의 헨리 2세의 침입을 받으면서 영국의 간섭과 지배를 받아왔다. 18세기에 들어서면서 아일랜드의 독립 열기는 민족주의 정서가 강해지는데다 프랑스혁명의 영향을 받아 1798년의 봉기로 분출되었다. 이 봉기의 실패로 아일랜드는 1801년부터 1922년까지 영국에 아예 합병되고 말았다. 그렇다

면 왜 영국이 아일랜드를 식민지로 만들었을까? 먼저 아일랜드가 영국에 가깝다는 지리적 근접성은 영국이 자기 이익의 구축에 아일랜드를 하나의 도구로 삼을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었다. 이러한 가운데 유럽의 종교개혁은 가톨릭교로 남아있던 아일랜드와 프로테스탄트화한 영국 사이의 관계를 긴장의 도가니로 몰고 간 계기가 되었다. 유럽대륙의 경쟁 국가들이 아일랜드와 결탁하여 영국의 뒤통수를 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아일랜드를 장악했다. 아일랜드에 대한 영국이 지닌 이러한 종교적인 편견은 본질적으로 영국의 문제였고, 나아가 아일랜드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는 문명화와 함께 인종주의 신화를 만들어낸 영국의 희생양이었다(354).

이러한 내용은 한국의 동아일보(1920년 4월 9 -11일)에서도 접할 수 있다. “영국이 아일랜드의 역사와 문화를 말살하기 위해 아일랜드 시인과 역사가를 학살하고, 아일랜드의 귀중한 역사적인 유물들을 불태우고, 고유한 의상의 착용을 금지 시킴으로써 과거 아일랜드의 기억을 말살시키려 했으며, 이러한 폭력적인 영국의 식민정책은 오히려 아일랜드의 민족적 자각을 일깨우게 했다”(홍영기 369). 그리고 이 신문은 또한 아일랜드의 1916년 부활절 봉기의 선언서를 장황하게 소개했다. 이 봉기는 아일랜드 역사상 새로운 시대를 전개한 것이고 아일랜드인들의 자유를 위한 투쟁이라고 평가하며 그 말미에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애란민족이 그것으로부터 새 역사를 앞으로 세계 인류 앞에 발전케 할 것을 내 눈 앞에 그려 볼 제 그들과 더불어 눈물이 뺨에 흘러내린다”(369). 또한 한국의 한 작가가 쓴 「애란 떠블린」이라는 글에서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5일간 유숙하면서 1916년 시가전의 유적이며, 어제 일요일 오후 노동조합의 시위운동을 보았는데, 남녀 변사의 교대 연설의 큰 뜻은 정치범의 석방, 애란의 절대독립, 공화국 건설이었나이다. 애란어가 많이 부활되어 가는데, 애란독립연설이 영어로 되어있는 것이 매우 섭섭하였습니다”(동아일보 1925.3). 이와 같이 영국의 식민정책에 따라 아일랜드어가 영어로 바뀌었다가 다시 회복되어 가는 상황을 표현하고 있어 「애러비」의 마지막 장면에서 여점원과 이야기를 나누는 두 영국인의 ‘영어 발음의 액센트’(D 23)로 대화가 애매하게 들렸다는 내용과 일치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III. 사랑의 은유로 표현된 아일랜드의 독립

조이스는 1906년 5월 5일자 편지에서 『더블린 사람들』의 집필 목적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나의 의도는 내 나라의 도덕사의 한 장을 쓰는 것이었다. 그리고 더블린이 마비의 중심인 것처럼 여겨졌기 때문에 이 도시를 그 장면으로 골랐던 것이다. (1)나는 무관심한 대중에게 그 양상을 네 가지 국면에서 보여주려 한 것이다. 즉, 어린 시절, 사춘기, 청년기, 그리고 공중생활이라는 국면에서 말이다. 작품은 이러한 순서로 배열되어 있다. (2)나는 대체로 꼼꼼한 비속성의 문체로 썼고 또 자기가 보고 듣고 한 것을 묘사에 있어 변경하거나 변형시키려 한다는 것은 배심 좋은 자의 소행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썼다. (3)나는 이 이상의 일을 할 수 없다. 나는 내가 써놓은 것을 고칠 수는 없다. (Yu 16 재인용)

(1)은 ‘무관심한 대중’은 바로 식민지 지배를 받은 사람들의 일반적인 특징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조이스의 뜻은 더블린에 관한 스토리들을 대중들이 보고 깨달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2)에서는 ‘비속성의 문체’라는 표현은 저속한 표현 같은 것을 그대로 썼으며 변형시킴이 없이 썼음을 나타낸 것이다. (3)에서 자기[조이스]가 써 놓은 것은 더 이상 고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독자들이나 식민주의자인 영국의 간섭이 있을 때를 대비해서 자신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음을 공언하고 있다. 실제로 이 작품을 쓴 조이스의 목적은 “무관심한” 더블린 사람들에게 무엇이 잘못되어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조이스는 파워(Arthur Power)에게 보낸 편지에서 “나는 항상 더블린에 관해서 쓴다. 왜냐하면 내가 더블린의 중심부에 이를 수 있다면 이 세상의 모든 도시들의 중심부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다. 특정한 것 안에 보편적인 것이 포함되어 있다”(Yu 48 재인용)라고 써서 자신이 더블린에 집중해서 작품을 창작함으로써 아일랜드를 부각시킬 수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이 조이스는 식민지 지배하의 아일랜드의 상황을 “마비”된 것으로 묘사하여 오코너가 말한 대로 “아일랜드의 현실을 폭로하는 자연주의 작가적인 태도”를 보여 “아일랜드의 졸라”(Irish Zola)라는 비평적 반응을 일으켰다(Yu 316). 그리고 그가 지적화 회화적 스타일(pictorial style)은 『더블린 사람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조이스는 독자를 소설의 행동에서 제외시켜 자신이 묘사한 연속된 사건의 이미지 속에 함께 표현하여 자신의 분위기나 환경에 적응하는 모습을 그린 기법(316)으로 당시 회화에서 인상주의파와 일치한다. 휴 케너(Hugh Kenner)도 이러한 조이스를 “인상주의 그림에 익숙한 예술가”로 보았다(Budgen ix-x).

이제 「애러비」에 그려진 마비되어 있는 더블린 거리의 모습을 살펴보자. “막힌 노스 리치몬드 스트리트는 크리스천 브라더스 스쿨이 수업을 파했을 때를 제외하고는 아주 조용한 거리였다. 아무도 살지 않는 이층집은 사각으로 된 지역에 이웃과는 떨어진 막다른 길 끝에 있었다. 집안에 상당한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리의 다른 집들은 갈색의 동요하지 않는 모습으로 서로 응시하고 있었다”(D 19). 조용한 거리, 사람들이 살지 않는 집, 갈색의 동요하지 않는 모습 등 정지되어 있는 것 같은 모습이다. 그 다음은 자신의 집 모습이 세밀히 묘사된다. “우리들 집의 전번 소유자인 사제는 뒤의 객실에서 죽었다. 오래 동안 폐쇄되어 있어서 이끼 냄새가 온 방안에 차 있고, 부엌 뒤에 있는 쓰레기 방은 오래된 쓸모 없는 종이들이 혼란스럽게 흩어져 있었다. 이런 것들 사이에서 나는 몇 권의 찌그러져 습기에 찬 페이지들로 되어 있는 문고판 책들을 발견했다: 월터 스캇의 『대수도원장』(The Abbot), 『경건한 성찬 배수자』(The Devout Communicant)와 『비도크의 비망록』(The Memoirs of Vidocq). 그중 표지가 노랗기 때문에 나는 마지막 것을 좋아했다. 집 뒤의 야생정원은 중앙에 사과나무가 있고, 내가 고인이 사용했던 녹슨 자전거 펌프를 찾은 곳은 몇 그루의 흩어진 관목이 있었다. 그는 매우 경건한 시제였다; 그의 의지에 따라 그는 그의 모든 돈을 기관들에게 넘겼고 그 집의 가구는 그의 자매에게 주었다.” 사제의 죽음, 그의 유품들, 녹슨 자전거 펌프, 등 마비를 접할 수 있는 객관적 상관물들이다. 그리고 정황묘사가 따른다. “짧은 겨울날 우리들이 저녁식사를 먹기 전에 황혼이 왔다. 우리들이 거리에서 만났을 때 집들은 어두컴컴해지기 시작했다. 우리들 위에 있는 하늘공간은 항상 변화는 보라색이었다. 하늘을 향해 거리의 램프는 희미하게 높이 켜져 있었다”(D 19).

이러한 묘사 후에 스토리가 시작되어 거리에서 노는 아이들의 모습과 주인공 소년, 그리고 망간 누나가 등장한다. “하루해가 짧은 겨울날이면 어둠이 일찍 찾아온다. 소년이 친구들과 놀다보면 저녁의 어둠이 내리고 거리의 등불이 희미한 불빛을 비친다. 이때쯤이면 아저씨가 돌아올 때가 되어 모퉁이를 돌 때 우리는 그

늘로 숨어 아저씨가 집으로 완전히 들어 갈 때까지 숨어 있다. 그때쯤에는 망간의 누나는 문을 열고 문간에 서서 차를 마시라고 동생을 부른다. 그러면 우리들은 건물의 그림자 속에 숨어 그녀를 살핀다. 집안의 불빛으로 그녀의 몸의 윤곽이 그대로 들어나며, 드레스와 부드러운 머릿단이 바람에 나부낀다”(D 20).

이후 소년의 마음에는 망간 누나의 영상이 늘 따라 다닌다. 토요일 저녁에는 속도를 따라 시장을 가곤 했는데, 벽적거리는 시장의 온갖 소란과 부딪치는 사람들 틈에서도 망간 누나의 영상은 그의 머리를 떠난 적이 없다. 기도를 드릴 때도 반드시 그녀의 이름을 입술에 올리며 자신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이상한 멋진 어구들을 그녀의 이름에 붙인다. 자신도 알 수 없지만 마음 깊은 곳에 마치 거센 홍수가 밀려오듯 그의 눈에 눈물이 고인 때도 있다. 자신의 혼란스런 마음을 어떻게 토로해야 할지, 그녀에게 말을 붙여볼 수 있을 지, 아니면 말을 해서는 안 되는지, 설사 말을 붙인다 해도 무슨 말을 먼저 해야 하는지. 소년 자신도 알지 못한다. 그저 자신의 몸이 마치 팽팽한 하프 줄처럼 긴장되어 있음을 느낄 뿐이다. 소년은 망간 누나에 대한 사랑을 “나의 혼란스러운 연정을 어떻게 전해야 할 지 알 수 없었다”(D 20)라고 표현하고 있다.

주말에 더블린 외곽에서 동양의 이국적 풍물을 파는 자선 바자가 열리는데, 그 바자의 이름이 애러비다. 망간의 누나가 애러비에 언제 가느냐고 먼저 말을 걸어온다. 그녀는 그 바자에 꼭 가고 싶지만 그 주에 열리는 학교의 피정 행사로 바자에 갈 수 없다고 한다. 소년은 그녀가 처음 말을 걸어온 데에 당황하여 어떻게 대답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지만 여하튼 자신이 가게 되면 뭔가를 사다주겠다고 겨우 말하였다. 그날 이후 소년은 주말을 기다리며 학교 수업 때나 밤에 침상에 누워 있을 때 머리 속에서 그녀의 모습이 벗어나질 않는다. 애러비라는 단어가 침묵 속에서도 소년의 영혼을 부르고 있다.

「애러비」에서 소년의 망간 누나에 대한 영상은 로맨스와는 거리가 먼 복잡한 ‘시장’에서까지 나타난다. 그는 아주머니의 시장바구니를 들어주기 위해 토요일마다 시장을 가는데 이곳에서도 망간의 영상은 따라 다닌다. 조이스는 시장 분위기를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우리는 술 주정꾼들과 물건을 흥정하는 여인들에게 떼밀리며, 일꾼들의 욕지거리, 돼지의 불살을 넣는 통 옆에서 지키고 서 있는 점원들의 되풀이 하는

날카로운 외침 소리, **오도노번 롯사(O'Donovan Rossa)에 대한 ‘그대들 모두 오너라’(come-all-you about) 라는 노래나 조국의 고통을 노래하는 민요를 부르는 거리의 악사들의 콧노래 소리를 뚫고, 번지르르한 거리를 헤치며 걸어 갔다.** (D 20 필자 강조)

이 부분에서 조이스는 복잡한 시장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지만 그는 ‘오도노번 롯사와 조국의 고통을 노래한 민요’를 강조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오도노번 롯사(1831-1915)가 아일랜드의 정치가로서 비밀결사인 프리메이슨을 창설한 인물이라는 사실과 또한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는 아일랜드의 고통을 노래하는 민요들이 있다는 사실 때문에 이 작품에서 조이스는 아일랜드의 독립에 관하여 사랑의 은유로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에 나오는 성배에 관한 부분, 즉 “나는 성배를 붙잡고 수많은 적의 무리속을 뚫고 무사히 운반하고 있는 자신을 상상 해 보는”(D 20) 것에서도 아일랜드의 독립에 대한 조이스의 간절한 마음을 읽을 수 있다. 즉, 소년에게 상점 소년들의 외침들까지도 “날카로운 연도”로 들리는 데 자신은 망간 누나를 완전하게 적들의 무리들 통해 나온 성배라고 상상한다.

조이스는 또한 작품에 하프를 끌어들여 아일랜드의 독립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실제로 하프리스트가 연주하고 있는 토마스 무어(Thomas Moore)의 민요 “침묵하라, 오 모이러여”(Silent, O Moyle)에는 “아직도 어둠 속에서 애란은 누운 채 잠들어 있다”는 구절이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23). 프랭크 오커너(Frank O'Connor)는 킬데어가(Kildare Street)에서 하프를 연주하고 있는 연주자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면서 「애러비」의 하프를 아일랜드를 상징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시간에 따라 새로 온 사람의 얼굴을 바라보다 지쳐빠져 하늘도 보면서 그는 하프 줄을 무심히 연주했다. 그의 하프 역시 . . . 이방인의 눈처럼 그리고 연주자의 손처럼 지쳐보였다. 다른 손이 건반 위에서 최고의 높은 음을 연주하고 다른 한 손은 ‘오 모이러여, 침묵하라’의 멜로디를 낮은 건반으로 연주했다. (Yu 318).

여기서 ‘이방인의 눈처럼 그리고 연주자의 손처럼 지쳐 보인 하프’에서 식민지인 아일랜드의 독립이 오랜 세월 동안 추구되어온 것임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고 볼 수 있다.

조이스는 소년이 가진 환상과 실망에 대한 마지막 은유를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거의 모든 상점이 닫혔고 홀의 보다 큰 부분이 어둠 속에 있었다. 나는 예배 후에 퍼지는 것과 같은 침묵을 깨달았다(D 23).” 조이스가 말하고자 하는 결정적인 것은 바로 더블린에 내려앉은 이와 같은 ‘마비’의 인상이다.

클린스 브룩스(Cleanth Brooks)는 「애러비」의 스토리가 감상적인 스토리로 사춘기 때의 (1)뿔내기 사랑(calf love)인가 아니면 첫사랑의 실망에 대한 감상적인 스토리(tear-jerking story)인가를 묻고 있다(126). 그것에 대한 답은 앞의 구문 (2) “나의 몸은 하프와 같았고 그녀의 말과 몸짓은 그 현 위에서 조종하는 손가락 같았다”라는 부분과의 연결하여 생각하면 낭만적인 사랑이 아닌 아일랜드의 독립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소설의 첫 부분 “막다른 길”이라는 단어의 사용과 스토리의 마지막에 표현된 소년의 상황과 비교해 보면 이 소설이 감상적인 스토리가 아님이 분명하고, (2)의 하프가 소년과 비슷하고, 그 하프를 타고 있는 망간 누나의 손가락인 것 같이 느끼는 것은 식민시대의 작가들이 작품을 창작할 때 사용했던 은유라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막다른 길’은 식민지인 아일랜드의 운명이요, 바자의 마지막에서 소년이 느낀 것은 손님인 소년을 멀리 두고 자기들만의 대화로 이어지는 바자회 직원의 모습에서 어쩌면 식민지배가 오래된 아일랜드의 운명 속에서 있는 자신의 모습에 스스로 괴로움을 느껴 노여워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IV. 마무리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조이스는 영국계 아일랜드인인 예이츠와는 달리 순수한 아일랜드 태생으로 예이츠가 이끄는 아일랜드의 문예부흥에는 동참할 수 없었다. 그는 일찍이 영국이 아닌 유럽대륙으로 건너가기로 결심하고 런던이 아닌 가톨릭의 중심지인 아탈리아의 트리에스트로 간 후 파리에서 작품을 창작하고 말년에는 취리히에서 사망했다. 이러한 조이스의 망명은 서구의 비평가들은 ‘자의적인 망명’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앞서 밝힌 대로 식민지 아일랜드의 생활이 자신의 작가를 발휘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아일랜드를 떠나지 않으면 안 되

었기 때문이다. 그러한 이유에서 조이스는 『더블린 사람들』을 포함한 그의 전 작품에서 시종일관 아일랜드를 주제로 하여 작품을 창작했던 것이다.

조이스의 문학은 탈식민주의적 관점으로 ‘다시 접근’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영국’ 작가가 아닌 순수한 ‘아일랜드’ 작가라는 차원에서 그의 작품은 ‘다시 읽기’를 해야 할 것이다. 역사적으로 아일랜드는 8세기 동안이나 영국의 식민지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영국제국의 언어인 영어가 더블린을 중심으로 영국계-아일랜드인들이 중심되어 집중적으로 보급되다보니 아일랜드어는 사라져 작품 「애러비」에 나타난 바와 같이, 그리고 한국의 신문에서도 언급된 바와 같이 ‘영어’가 아일랜드의 일상어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일본의 한국에 대한 식민정책은 영국과 독일의 정책을 본받아 실시했기 때문에 식민지 지배 당시 일본이 한국의 이상(李霜)에게 가했던 핍박은 영국이 제임스 조이스와 같은 작가들에게도 가능했으리라고 생각된다. 이상은 「悔恨의 章」에서 작가 개인에게 와 닿는 무거운 압박을 이렇게 적었다. “문자를 달고, 도서관에서 소환장이 오고, 세상에 맞지 않는 의복을 입은 신세. 그래서 비겁자가 되어야 한다”(이보영 428). 조이스의 상황도 이와 비슷했을 것이기 때문에 그는 신화를 비롯한 여러 가지 상징을 동원하여 은유적으로 표현했음을 알 수 있다.

조이스는 작가로서 아일랜드의 애국자임에 틀림없다. 영국의 식민지였던 아일랜드의 상황이 언어까지 영어로 정착되어 가는 과정에서 더 이상 더블린에 머물러 있을 수 없었기 때문에 아일랜드를 떠나 유럽에 정착했다. 조이스가 아일랜드에 있었다면 예이츠처럼 과거지향적인 작품을 창작했거나 다른 작가의 모습으로 나타났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바로 「애러비」에 나타난 ‘짜사랑’은 낭만적인 사랑이 아닌 조이스가 ‘아일랜드의 독립’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임을 읽어낼 수 있다.

(전주대)

인용문헌

- 김종건. 『더블린 사람들. 亡命者들』. 서울: 범우사, 1988.
- 윤혜준. 「조이스와 프랑스: 『율리시즈』와 프랑스적 맥락」. 『외국문학연구』. 제22호. 한국의국어대학교 외국문화연구소(2006.2): 95-114.
- 李甫永. 『植民地時代文學論』. 서울: 도서출판 필그림, 1984.
- 이태숙. 「조선. 한국은 아일랜드를 닮았다?」-야나이하라 타다오(内矢原忠雄)의 「아일랜드와 조선에 관한 논설」. 『역사학보』 182(2004).
- 전은경. 홍덕선. 민태운. 『조이스 문학의 길잡이: 더블린 사람들』. 서울: 도서출판 동인, 2005.
- 홍영기. 「영국의 아일랜드 식민지 지배와 일본의 한국 지배 비교연구」. 한일관계사연구논집편찬위원회 편. 『일제 식민지 지배의 구조와 성격』. 한일관계사 논집 8. 서울: 경인문화사, 2005. 347-90.
- Abrams, M. H. *A Glossary of Literary Terms*. Sixth Edition. New York: Harcourt Brace College Publishers, 1993.
- Banta, Melissa and Oscar A. Silverman. *James Joyce's Letters to Sylvia Beach, 1921-1940*. Oxford: Plantin Publishers, 1987.
- Brooks, Cleanth and Robert Penn Warren, eds. *Understanding Fiction*. Third Ed.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Inc., 1979.
- Budgen, Frank. *James Joyce and The Making of Ulysses*. Intro. Hugh Kenner. Bloomington & Lond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60.
- Choi Seokmoo. "James Joyce and the Anglo-Irish Conflict." *James Joyce Journal* 2(May 1996): 206-33.
- Duffy, Edna. "Disappearing Dublin: *Ulysses*, Postcoloniality, and the Politics of Space." *Semicolonial Joyce*. Eds. Derek Attridge and Marjorie How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0. 37-57.
- Ellmann, Richard. *James Joyc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82.
- Hawthorn, Jeremy. *Studying the Novel*. Fourth E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1.
- Joyce, James. *Dubliner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 _____. *Dubliners*. London: Penguin Books, 2000.
- _____. *A Portrait of the Artist as a Young Man*. Ed. Jeri Johns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0.
- _____. *Letters of James Joyce*. Ed. Richard Ellmann. 3 vols. London: Faber & Faber, 1966.
- Kiberd, Declan. *Inventing Ireland: The Literature of the Modern Nation*. London: Vintage, 1995.
- O'Connor, Frank. "Work in Progress." *The Lonely Voice: A Study of the Short Story*. New York and Cleveland: The World Publishing Company, 1963. 113-27.
- Roughley, Alan. *James Joyce and Critical Theory: An Introduction*. Ann Arbor: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1991.
- Yu Chong-Ho, intro. and annotated. "Araby." *Dubliners with Essays in Criticism: Annotated with Critical Introduction*. Seoul: Shina-sa, 1977. 55-64.

Abstract

Postcoloniality in “Araby”: Joyce’s Metaphor of Ireland’s Independence

Sangwook Shim

This paper is to examine James Joyce's metaphor of Ireland's independence in “Araby” by using the postcolonial theory. It has confronted critics with the hidden or unstated implications of colonial and imperialist relations between lands and people for the interpretation of literary works. Joyce identifies the British Empire and the colonial Irish as the Irish man's spiritual authority in *Dubliners*.

The unnamed boy in “Araby” suffers from psychological anxiety caused by the outsiders his including uncle’s family, and bazar’s staff, who speak English with accents standing for colonial Ireland. The young boy is forced to suppress his adolescence and Mangan's sister provokes an epidemic of social purity. He has no choice, but to obey the colonial Irish policy of inescapable dominance and finally becomes a psychologically paralyzed victim. It shows the traditional geopolitical strategy of Irish resistance to Anglo-Irish ascendancy.

Joyce consciously adopts a “French” mode with a highly pictorial style, rather than following the dominant British culture and its conventions in the writing process. Joyce, in his self-imposed exile, rejects the colonial Irish identity as well as the English and Anglo-Irish literary hegemony in colonial Ireland. Accordingly, we can understand the Platonic love in “Araby” is not a romantic love, but a metaphor of Ireland's independence from British colonialism.

■ **Key words** : James Joyce, “Araby,” postcoloniality, exile, love, independence
(제임스 조이스, 「애러비」, 탈식민성, 망명, 사랑, 독립)

논문 접수: 2009년 5월 15일

논문 심사: 2009년 6월 2일

게재 확정: 2009년 6월 13일